

지역 소식통

고창군, 여름방학 중 취약 계층 아동 구강 관리 실시

고창군보건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고창 행복원 등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한 미소, 건강나눔(齒)교실 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아이들은 여름방학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무더위로 심의 활동이 줄어들어 구강건강이 소홀해지기 쉽다.

이에 보건소는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올바른 구강 관리법을 배우며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찾아가는 구강교실을 열고 있다.

구강검진을 통한 구강상태 점검,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교육(치아홈메우기, 구강교육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알아보기), 1차진료 (초기우식 유치발치, 스켈링 등) 에 방관해지고 무더위로 심의 활동이 줄어들어 구강건강이 소홀해지기 쉽다.

앞서 상반기에도 지역아동센터 등 12개소 250여명 직접 방문하여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글로벌 리더 육성 여름방학 영어캠프 개최

부안군은 지난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4박 5일간 글로벌 리더 육성 2024년 부안군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부안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

관내 초·중학교 및 개별 신청을 통해 초등 4학년부터 중등 1학년까지 총 50여명을 선발하여 실시한 이번 영어 캠프는 기존 틀에 박힌 영어 수업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영어 표현, 다양한 장소에서 상황에 대한 역할극 등을 통한 수업 방식으로 참여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캠프는 부안군과 서울 소재 민병철 어학원이 준비 및 진행을 통해 오전, 오후에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영어 수업, 저녁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하는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추억을 제공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생활인구 26만명, 꾸준한 증가세

고창군, 3월 기준 고창에 다녀간 체류 인구 21만여명... 약 2000여명 이상 늘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다녀간 생활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다양한 매력을 즐기는 관광객을 비롯해, 스포츠 활성화,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창군은 정부가 최근 88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산정결과, 3월 기준 고창군의 생활인구가 26만명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체류인구와 외국인인을 포함한다. 체류인구는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자를 말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체류인구 증가 추이다. 3월 체류인구는 21만명, 등록인구의 8배에 달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와 비교해 체류인구가 약 2000명 이상 늘었다.

고창군의 체류인구는 3일 이하 단기간 체류 인원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류인구가 늘어난 배경으로 관광과 스포츠분야 활성화가 꼽힌다.

고창은 지난해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혜의 대성공으로 제미안 축제와 이색적인 관광지인 인소문나면서 주변 광주, 정읍, 전주 등에서 주말 유입 인구가 늘고 있다.

군은 상반기 13개의 각종 스포츠대회와 16개 팀의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약 40여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냈다. 당일 체류인구 비중이 55%로 가장 높은 만큼, 대형 숙박시설인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으로 숙박형 체류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올해 고창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500여명이다. 지난해 입국한 전체 계절근로자 600명의 2배를 뛰어넘고, 고창군 성송

면(1677명)의 전체인구와 맞먹는다.

지역 곳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식료품점과 음식점, 주점 등이 들어서고 있고 활력을 잃어가던 전통시장의 장날에도 발 디딤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붐비고 있다.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위계이전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고창군이 선정되어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상하능원의 '퍼머빌리지'를 리모델링하여 사용자 목적과 편의에 맞춰 사무, 독립형, 휴게공간 등 다양한 공유오피스 거점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아름다움 자연과 군민들의 따뜻한 인심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보기할 수 있도록 증발냉방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안상설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부안군, 여름철 쾌적한 장보기 환경 제공 최선

부안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보기할 수 있도록 증발냉방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와 군비 4억여원을 들여 부안상설장내에 증발냉방장치 78세트를 설치했다.

증발냉방장치는 고압으로 분사된 물 입자(20um이하)가 공기 중에 기화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해 대기 온도를 3~5도 낮추는 신개념 친환경 냉방장치다.

또 미세먼지 저감과 악취제거 효과가 탁월하며 분무의 방향이나 시간 조절도 가능해 안개 분무로 인해 진열상품의 피해가 없어 전통시장에 적합한 온도 조절 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부안상설시장은 그동안 아케이드 내 점포가 밀집돼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했으나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증발냉방장치로 인해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부안상설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무더위로 장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증발냉방장치 설치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장마 후 폭염 기승... 고추 병해충·생육관리 당부

정읍시 농기센터, 탄저병·담배나방 등 적기 방제·토양 양·수분 균형잡힌 관리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장마 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고추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어 재배농가들에게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와 재배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고추는 8월에 수확량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탄저병, 담배나방 등 적기 방제와 토양 양·수분의 균형잡힌 관리로 수확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저병은 비, 비파에 의해 감염되고 주로 열매에 발생하여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우 전후 반드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농약을 살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담배나방은 애벌레가 고추 열매 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피해를 입은 과실은 부패해 낙과한다. 애벌레는 다른 과실로 옮겨가면서 피해를 주는데 1마리당 3~4개의 고추를 가해한다. 방제를 소홀히 했을 경우 생산량이 20~30% 감소하므로 사전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고추는 여름철 강한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 열매가 데이는 햇벌 데임(일소)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폭염으로 토양수분이 부족해지면 갈습 흡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열매 끝부

분의 색이 바래며 조직이 무르는 배꼽썩음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면 질소와 칼리의 흡수가 급격히 늘어나 갈습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물은 조금씩 자주 주는 편이 좋다. 착과수가 많아지는 8월에 수세가 약해지면 생리장해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강정치는 되도록 삼가고 비료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세력 유지에 신경써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방제 및 생육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지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정읍시는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지원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이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

수요조사 대상 사업은 총 5개 분야로, △6차산업 돌봄지원사업 △6차산업 도야지원사업 △6차산업 고도화지

원사업 △북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 △마을경영력 경쟁력 강화 사업이 포함된다.

이번 수요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각 사업별로 매출액 기준 및 별도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농

촌융복합산업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 6차산업 돌봄지원사업 1개소와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4개소를 진행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읍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장 조사

정읍시의 대표 특산물인 정읍 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현장 조사가 지난 1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 조사는 옹동면 전통생활문화관 및 구민당에서 이뤄졌으며, 전문위원, 지황 재배농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직접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시는 1992년에 지황 주산지로 지정됐고, 2015년에는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했다.

2022년부터는 정읍지황 농촌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읍지황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고려지황을 포함한 8종의 재래종이 재배되는 전사포뿐만 아니라 속지황 전통 가공방식 및 경옥고 전통 종량방식도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정읍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다면 해당 유산의 가치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읍지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언급된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 약재로 조선시대부터 임금에게 진상됐다. 정읍은 지황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재배농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까지 옹동·태인·칠보면 등에서 지황이 재배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